삼일PwC | Issue Brief

GenAI를 위한 내부통제와 AI 거버넌스

2026년 2월 발표된 GenAI를 위한 COSO 실무가이드에 기반한 내부통제 및 AI 거버넌스

November 2026



본 자료에는 AI를 활용하여 생성한 이미지가 일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Contents

I. GenAI 고유위험을 위한 COSO 프레임워크 기반 내부통제 **02**

1. 업무의 "도구"에서 "업무 수행자"로 전환되는 GenAI 03

2. Gen AI의 모델이 아닌 역할에 기반한 위험평가 04

3. 내부통제 관점의 GenAI 고유의 특성 05

II. COSO 기반 내부통제와 AI 거버넌스 **06**

1. GenAI를 위한 COSO 실무가이드에 따른 내부통제 07

2. 내부통제 체계의 실행 기반 AI 거버넌스 10

III. 맺음말 **14**

GenAI를 위한
COSO 프레임워크 기반 내부통제



01 업무의 “도구”에서 “업무 수행자”로 전환되는 GenAI

최근 금융기관을 포함한 많은 기업에서 GenAI(생성형 AI)의 활용 범위가 빠르게 확대되고 있습니다. 초기에는 문서 작성이나 정보 검색과 같은 개인 생산성 향상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이제는 문서·데이터 추출, 거래 대사, 결산 지원, 규제정보 검색, 이상징후 탐지, 판단자료 생성, 고객 및 임직원과의 상호작용 등 핵심 업무 프로세스로 활용 영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GenAI가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통해 다른 시스템과 연결되거나 AI 에이전트 형태로 여러 단계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AI는 단순히 정보를 제공하는 도구를 넘어 실제 업무 시스템에 명령을 전달하고 후속 조치를 실행하는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업무 효율성과 분석 역량을 크게 높이는 동시에, 기존 정보시스템 통제만으로는 충분히 대응하기 어려운 새로운 위험을 만들어냅니다.

GenAI 를 위한 COSO 실무가이드 (2026년 2월)

5	**구성요소** 유지
17	**원칙** 유지
8	**GenAI 기능** 분류

이러한 변화에 대응하여 COSO[1]는 2026년 2월 기존 내부통제 프레임워크의 5가지 구성요소와 17가지 원칙을 유지하면서, GenAI의 고유한 위험을 어떻게 식별하고 통제할 것인지에 관한 실무 가이드[2]를 제시하였습니다. COSO 실무가이드는 데이터부터 의사결정까지의 과정에서 Gen AI의 기능을 8가지로 분류하고 그 분류에 따른 위험 평가 및 통제 설계를 제안합니다. COSO 프레임워크에 기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GenAI를 프로세스에 도입하는 경우에는 COSO의 실무가이드에 기반한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설계 개선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GenAI 활용 범위의 확장: “도구”에서 “업무 수행자”로

01 초기

개인 생산성 향상

- 문서 작성
- 정보 검색

02 확대

핵심 업무 프로세스

- 문서·데이터 추출
- 거래 대사
- 결산 지원
- 규제정보 검색
- 이상징후 탐지
- 판단자료 생성
- 고객 및 임직원과의 상호작용

03 연결·실행

API·AI 에이전트 연계

- API를 통해 다른 시스템과 연결
- AI 에이전트 형태로 다단계 업무 수행
- 업무 시스템에 명령 전달·후속 조치 실행

1) COSO는 1985년 미국의 회계·재무·내부감사 분야를 대표하는 5개 전문기관의 후원으로 설립되었으며,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활용되는 내부통제 프레임워크를 제시하는 기관으로, 조직의 내부통제, 위험관리, 거버넌스, 부정방지 체계의 고도화를 지원하기 위한 연구와 지침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2) Achieving Effective Internal Control Over Generative AI

02 Gen AI의 모델이 아닌 역할에 기반한 위험평가

GenAI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려면 먼저 기술의 명칭보다 실제 업무에서 수행하는 기능을 이해해야 합니다. 동일한 모델을 사용하더라도 규정을 검색·요약하는 경우와 거래를 자동 처리하는 경우의 위험은 크게 다르기 때문입니다. COSO 실무가이드는 데이터에서 의사결정에 이르는 GenAI의 활용을 다음과 같은 8가지 기능으로 구분하고, 기능별로 위험을 평가하고 통제를 설계할 것을 제안합니다.

데이터에서 의사결정까지, GenAI의 8가지 기능과 대표 위험

데이터 ↓ 의사결정

	기능	주요 활용	대표 위험
01	**데이터 추출·수집**	비정형·정형 정보에서 필요한 데이터를 추출	누락·오인식·민감정보 처리
02	**데이터 변환·통합**	정리·정규화·매핑을 통해 사용 가능한 데이터로 변환	매핑 오류·값 누락·왜곡
03	**자동 거래 처리·대사**	대량의 반복 업무와 거래를 자동 처리	오류의 대량 확산·잘못된 예외 판단
04	**업무흐름 조정·자율 실행**	AI 에이전트가 여러 단계의 작업을 연계·실행	권한 초과·승인 우회·직무분장 충돌
05	**판단·예측·인사이트**	예측, 분석, 판단자료 또는 초안을 생성	환각·편향·근거 없는 결론
06	**AI 기반 상시 모니터링**	대량 데이터에서 이상징후를 지속 탐지	오탐·미탐·잘못된 임계값
07	**정보 탐색·요약**	대규모 규정·정책·문서를 검색하고 요약	오래된 출처·중요 내용 누락
08	**사람과 AI의 협업**	AI가 사람의 분석·작성·코딩 등을 보조	자동화 편향·형식적 검토

실제 업무에서는 이러한 기능들이 서로 결합되어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결산 프로세스에서는 데이터를 추출하고 변환한 뒤 거래를 대사하고, 예외사항을 분석하여 담당자에게 후속 작업을 배정하는 과정이 하나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AI 위험평가는 개별 모델만을 대상으로 하기보다, 입력 데이터부터 산출물과 후속 조치까지 전체 프로세스의 연결관계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03 내부통제 관점의 GenAI 고유의 특성

GenAI의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면 내부통제의 설계 방식도 달라져야 합니다. 특히 다음의 다섯 가지 특성은 준법감시인과 내부통제 담당자가 주목해야 할 영역입니다.

01 확률적 결과



AI 산출물은 "정답"보다 "검증이 필요한 주장"에 가깝습니다

전통적인 시스템은 동일한 입력과 로직에 대해 동일한 결과를 기대할 수 있지만, GenAI는 확률적으로 결과를 생성합니다. 그 결과는 자연스럽고 설득력 있어 보이면서도 사실관계가 틀리거나 중요한 근거가 누락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공식 기록에 사용되는 AI 산출물에는 출처 확인, 사람의 검토, 신뢰도 기준 등 별도의 검증 절차가 필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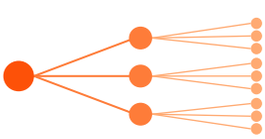
02 빠른 변화



정기적인 통제평가만으로는 변화 속도를 따라가기 어렵습니다

AI 모델, 프롬프트, 참조자료, 설정값과 외부 공급업체의 서비스는 수시로 변경됩니다. 이에 따라 위험평가와 통제도 정해진 연례 주기에만 수행하기보다는 중요한 변경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영향도를 평가하고 재검증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03 대규모 확산



작은 오류가 조직 차원의 문제로 증폭될 수 있습니다

AI가 대량의 거래 처리나 업무흐름 자동화와 연결되면 하나의 잘못된 설정이나 판단이 다수의 거래, 보고, 고객 대응으로 빠르게 확산될 수 있습니다. 자동화 수준이 높을수록 승인 지점, 중단 기준, 복구 절차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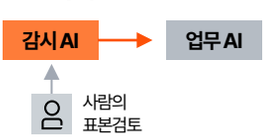
04 낮은 진입장벽



AI 사용의 주체가 크게 늘어납니다

일반 임직원도 손쉽게 GenAI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IT부서가 관리하는 공식 시스템만으로 위험을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허용 가능한 사용범위와 금지 데이터, 사전승인 대상, 책임과 보고절차를 구체적으로 정하고 실제 사용 현황을 지속적으로 파악해야 합니다.

05 AI가 AI를 감시하는 시대



모니터링 자체에 대한 검증이 필요합니다

GenAI의 분석력과 패턴 인식 역량은 사람이 전수 검토하기 어려운 대량의 데이터를 모니터링하는 데 활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감시 역할을 수행하는 AI도 오류와 성능저하 가능성이 있으므로, 성능지표와 사람의 표본검토, 정기적인 재검증이 함께 운영되어야 합니다.

II

COSO 기반 내부통제와 AI 거버넌스



01 GenAI를 위한 COSO 실무가이드에 따른 내부통제

COSO의 5가지 구성요소는 회계나 감사만을 위한 개념이 아닙니다. GenAI 환경에서는 "누가 책임지는가, 어떤 위험이 있는가, 무엇으로 통제하는가, 어떤 정보를 남기고 보고하는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라는 다섯 가지 실무 질문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에 대응하기 위해 내부통제는 다음의 요소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COSO 5가지 구성요소와 실무 질문, 주요 실행수단

실무 질문	COSO 구성요소	주요 실행수단
누가 책임지는가?	**통제환경** 책임과 통제의 기반	AI 거버넌스 위원회 · 책임자 지정 · 허용사용정책 · 권한과 책임 · 교육
어떤 위험이 있는가?	**위험평가** 위험의 식별·평가	활용사례 관리대장 · 시나리오 분석 · 중요도 평가 · 변경 시 재평가
무엇으로 통제하는가?	**통제활동** 예방·발견·시정 절차	사전승인 · 사람의 검토 · 성능시험 · 권한분리 · 변경관리 · 복구
어떤 정보를 남기고 보고하는가?	**정보와 의사소통** 기록·보고·소통	출처·버전 기록 · 중앙 저장소 · 사고·변경 보고 · 사용자 안내
제대로 작동하는지 어떻게 확인하는가?	**모니터링 활동** 점검과 지속 개선	대시보드 · 표본검토 · 재검증 · 근본원인 분석 · 개선조치

통제환경

- 현업
- IT
- 정보보호
- 개인정보
- 법무
- 준법
- 리스크관리

첫째, 책임체계가 명확해야 합니다. AI는 현업, IT, 정보보호, 개인정보, 법무, 준법, 리스크관리 등 여러 기능에 걸쳐 운영되므로 단일 부서가 모든 위험을 관리하기 어렵습니다. 고위험 활용 사례를 승인하고 주요 위험과 변경사항을 검토하는 협의체를 두되, 개별 AI 서비스마다 실질적인 업무 책임자와 변경·검토·승인 권한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위험평가

- 활용사례 관리대장
- 시나리오 분석
- 중요도 평가
- 변경 시 재평가

둘째, 위험평가는 살아 있는 관리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모델·데이터·설정이 바뀔 때마다 위험평가를 갱신하고, "이 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되는가"를 묻는 시나리오 분석을 통해 예외상황과 숨겨진 의존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에 기반하여 내재화된 모니터링 지표를 만들어 식별된 위험을 구체적인 핵심위험지표(KRI), 대시보드 또는 경보(alert) 체계와 연계하여, 모델 성능 저하, 편향, 오남용 등의 오류 징후를 조기에 탐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살아 있는 위험평가: 변경 → 재평가 → 지표화 → 조기 탐지



통제활동

- 사전승인
- 성능시험
- 변경관리
- 사람의 검토
- 권한분리
- 복구

셋째, 통제활동은 예방·발견·시정을 균형 있게 결합해야 합니다. 모든 결과를 사람이 전면 재수행하는 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으므로, 위험 수준에 따라 사람의 검토, 성능시험, 독립적인 결과 비교, 자동 경보, 직무분장, 변경 승인과 복구절차를 조합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통제 활동은 검증 및 사후 분석, 직무 분장, 환각(Hallucination) 방지 장치, 엄격한 변경관리 등으로 제시됩니다.

위험 수준에 따른 예방·발견·시정 통제의 조합

01	**HITL 검토** Human-in-the-Loop	AI 산출물에 대한 전면 재수행부터 예외사항을 대상으로 한 위험 기반 표본 검토까지 **다양한 수준의 검토**를 사람이 수행
02	**성능 테스트** Performance Testing	테스트 데이터 집합을 활용하여 AI의 **정확성과 완전성**을 검증하고, 예외 상황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 수행
03	**다중 모델 검증** Multi-Model Validation	서로 독립적인 AI 모델 또는 결정론적 기준 알고리즘(Deterministic benchmark algorithms) 간의 **결과를 비교**하여 산출물의 타당성을 검증
04	**데이터 분석 기반 모니터링** Data Analytics Monitoring	AI 산출물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이상 징후나 모델 기능저하**를 탐지하고, 위험 수준에 맞추어 설정된 임계값을 기준으로 관리
05	**제3자 검증** Third-Party Validation	특히 고위험 영역이거나 외부 AI 시스템에 의존하는 경우, AI 모델 및 산출물에 대해 **독립적인 검토 또는 인증**을 수행

정보와 의사소통

- 출처·버전 기록
- 중앙 저장소
- 사고·변경 보고
- 사용자 안내

넷째, 데이터 변환·통합, 지식 검색·요약, 인간-AI 협업과 같은 AI 기능은 정확하고 적시에 전달되는 정보 흐름에 크게 의존하므로, 관련 변경사항과 한계를 조직 전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통제가 중요합니다. 데이터 변환 및 통합 기능의 경우 변환 규칙이 변경되면 하위 프로세스에 오류가 확산되지 않도록 관련 부서와 시스템에 사전에 공유해야 하며, 지식 검색 및 요약 기능의 경우 참조하는 지식 저장소, 정책, 규제 기준이 변경되면 영향을 받는 모든 조직에 이해하기 쉬운 형태로 변경 내용을 전달하고 필요 시 확인 절차를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통제 운영의 근거로 주요 AI 업무의 입력·출력, 출처, 모델 버전, 프롬프트와 참조자료, 검토·승인 결과, 변경이력과 사고 대응 기록을 보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정보와 의사소통의 4가지 핵심 통제

01 출처 기록

데이터가 어디에서 추출되고, 어떤 방식으로 처리되었는지, 그리고 어떤 모델 구성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기록하여 같은 입력값에서 다른 산출물이 도출되는 경우 **산출물 간의 유사성**을 평가

02 중앙 집중식 저장

재무보고에 영향을 미치는 AI의 프롬프트, 참조자료, 모델 정보도 회계정책이나 프로그램 소스코드처럼 **접근권한 등이 통제된 환경**에서 관리

03 산출물 품질 평가지표

환각(Hallucinations), 출처 인용 비율, 편향성 등 모델 또는 산출물의 품질을 측정하는 **핵심성과지표(KPI)**를 정의하고, 그 평가 결과를 정기적으로 보고 관리

04 커뮤니케이션 프로토콜

사고, 변경사항, 한계점에 대해 **누구에게 통보**해야 하는지, **얼마나 신속하게 전달**해야 하는지를 명확히 정의

모니터링 활동

- 대시보드
- 표본검토
- 재검증
- 근본원인 분석
- 개선조치

마지막으로 모니터링 관점에서는 Gen AI는 결정론적(Deterministic) 방식이 아니라 확률론적(Probabilistic) 방식으로 작동하기 때문에, '통제 실패'의 정의 자체도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직은 앞으로 단일 성과지표(예: 통과/실패)에 의존하기보다는 여러 지표를 종합한 AI 허용기준(Multi-metric AI Tolerances)을 점점 더 많이 활용할 것입니다. 이러한 구조화된 접근방식은 AI 시스템의 성능을 여러 품질 차원에서 평가하고 수용 여부를 판단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AI의 성능은 업무 정확도, 데이터 유출 허용수준, 편향 수준, 설명가능성의 최소 기준, 사이버보안 수준, 모델 변경 속도 등의 차원별로 허용 가능한 오류 수준 또는 위험 임계값을 설정하는 방식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허용범위를 설정하고 모니터링하면,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GenAI 환경에서 AI의 성능과 통제 효과성을 더욱 현실적으로 평가할 수 있게 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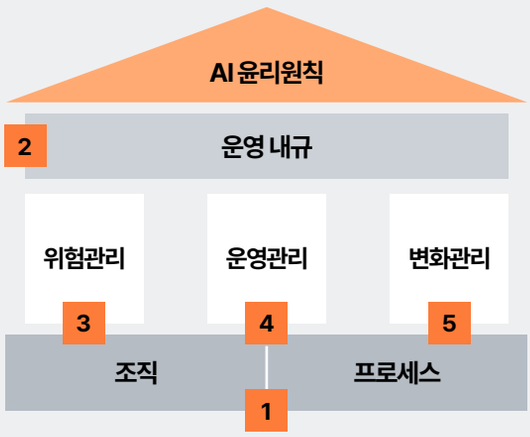
02 내부통제 체계의 실행 기반 AI 거버넌스

GenAI 를 위한 COSO 실무가이드의 도입은 "AI 거버넌스 체계 수립 → GenAI 활용 사례 집계 → 위험 평가 → 통제 설계 → 통제 도입 및 소통 → 모니터링과 개선"의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이러한 흐름은 순환적인 운영체계로 마지막 모니터링 단계에서 발견된 성능저하, 통제 미비점, 기술 변화와 새로운 활용 사례는 다시 거버넌스와 위험평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즉, AI 거버넌스는 구축 후 고정되는 체계가 아니라 AI 역량과 비즈니스 환경의 변화에 따라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되고 고도화되는 관리 프로세스입니다. AI 거버넌스는 이러한 Gen AI 환경에서 COSO 원칙이 실제로 작동하게 하는 실행 기반으로서 내부회계관리제도와 함께 통합된 내부관리 체계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GenAI를 위한 COSO 지침 도입 단계: 순환적 운영체계



AI 거버넌스 체계의 구성



1 조직·프로세스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조직 구성, 역할 정의 및 업무 절차 수립

2 AI 윤리원칙·운영 내규
AI 관련 활동 시 준수할 기본 AI 통제 및 관리 원칙과 내부 업무 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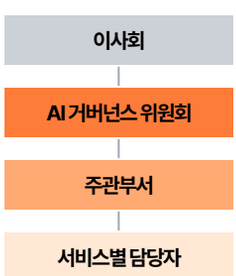
3 위험관리
위험수준 평가, 위험경감(완화) 조치 수행

4 운영관리
AI 성능과 이력 추적 가능성 확보

5 변화관리
교육, AI거버넌스에 대한 이해, 역할 별 통제 역량과 보고 절차

1 조직 및 프로세스

COSO: 통제환경
원칙 2·3



AI는 여러 부서와 기능이 연계되어 운영되므로, 단일 부서 중심으로는 위험을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습니다. AI 거버넌스 위원회에 법무, 컴플라이언스, IT·정보보호, 리스크 관리 부서 등이 참여해야 합니다. AI거버넌스 위원회는 고위험 활용사례를 승인하고 주요 위험을 검토하는 의사결정기구로서, 그 결과를 이사회에 정기적으로 보고해야 합니다. AI 거버넌스 주관부서는 위원회의 결정을 실행하고 체계를 상시 운영하며, 개별 AI 서비스마다 담당자를 지정하고, 프롬프트·참조 데이터·설정값 등 책임(RACI[3])을 명확히 해야 합니다. 조직의 규모와 구성은 기업의 AI 성숙도에 맞도록 유연한 설계가 요구됩니다.

2 AI 윤리원칙·운영 내규

COSO: 통제환경·통제활동
원칙 1·12

AI 윤리원칙은 국내외 주요 가이드라인과 기업 고유의 비전·산업 특성을 반영해 수립되어야 합니다. 다만 실제 업무에 적용되려면 다음을 포함하여 GenAI 허용사용정책(AUP)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01 입력이 금지되는 데이터(개인정보, 미공개 재무정보 등)

02 금지되거나 사전승인이 필요한 활용사례

03 AI 결과물을 공식 기록에 반영하기 전에 검증할 의무

운영 내규는 기존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IT 운영, 내부회계 규정과의 정합성을 바탕으로 제정되어야 합니다. 내규 수립 시에는 기존 규정과의 중복성 및 상호 연관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AI 관련 활동이 기존 규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충분히 분석하여, 불필요한 기존 규정 개정은 최소화해야 합니다.

3) RACI: 업무 과정에서 누가 무엇을 책임지고(Responsible), 승인하고(Accountable), 참조하고(Consulted), 통보받을 것인지(Informed)를 명확히 하는 책임 배분표

3 위험관리

COSO: 위험평가
원칙 6~9

- 환각
- 편향
- 설명가능성 부족
- 프롬프트 인젝션

AI 위험관리의 출발점은 전사 AI 활용사례 목록(관리대장)이며, 각 사례에 대해서는 기존 위험(정보보호, 보안 등)과 함께 GenAI 고유의 위험을 평가하는 데 있습니다. 환각, 편향, 설명가능성 부족, 프롬프트 인젝션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해당 위험수준 별로 차등으로 리스크를 점검하고 완화하기 위한 조치가 실행되어야 하며 모델 업데이트나 성능 저하를 식별하여 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전에 재평가해야 합니다.

AI 위험관리 프로세스



4 운영관리

COSO: 정보와 의사소통, 모니터링 | 원칙 13~17

기술적 품질
정확도 · 정밀도

윤리적 기준
공정성 · 설명가능성

Gen AI에 대한 정확도·정밀도 등 기술적 품질과 공정성·설명가능성 등 윤리적 기준을 아우르는 성능지표를 설정하고 상시 모니터링되도록 해야 합니다. 점진적인 성능 저하는 상시 모니터링만으로는 발견하기 어려우므로 과거 데이터를 활용한 정기 재검증과같은 별도의 평가로 보완되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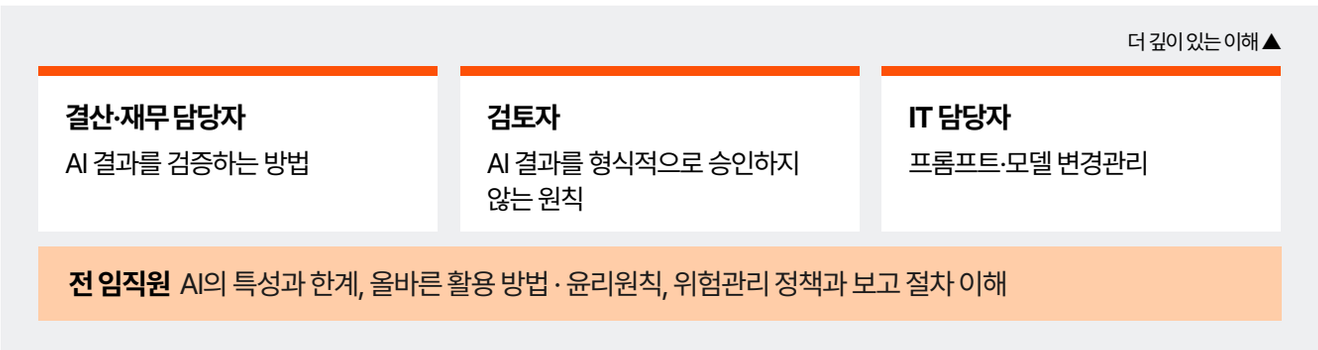
프롬프트, 입력·출력, 출처, 모델 버전 등의 기록을 보관하면 통제 체계가 운영되었다는 증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로 인한 오류나 사고는 근본원인을 분석해 미비점으로 평가하고, 중요한 사안은 AI거버넌스 위원회에 보고되도록 통제를 설계하고, AI 결과물이 고객이나 투자자 등 외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설명 요구에 대응하고 외부와 소통하는 절차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5 변화관리

COSO: 통제환경
원칙 4·5

전 임직원은 AI의 특성과 한계, 올바른 활용 방법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와 역량을 갖추고 윤리원칙, 위험관리 정책과 보고 절차를 이해해야 합니다. 일부 역할에 따라서는 특정 부문에 대한 더 깊이 있는 이해가 요구됩니다.

역할에 따른 AI 역량 요구 수준



교육은 일회성으로 끝내지 않고 모델과 활용사례의 변화에 맞춰 계속 갱신되도록 하며,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피드백을 반영해 조직내 인원들에게 충분히 수용되도록 계획 및 실행되어야 합니다.

III

맺음말



AI 대전환 시대,
GenAI 고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내부통제의 실행력이 경쟁력이 됩니다

GenAI는 뛰어난 속도와 적응성, 그리고 조직 전반에 걸친 확장성을 바탕으로 업무 수행 방식과 의사결정 체계, 나아가 위험관리 환경 자체를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AI를 사용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게 사용할 것인가"입니다. 기술의 속도에 맞는 책임체계와 지속적인 내부통제를 갖추는 것이 안전한 혁신의 출발점입니다.그러나 이러한 혁신의 이면에는 기존 정보시스템과는 다른 새로운 위험과 취약성이 존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체계적인 거버넌스가 반드시 수반되어야 합니다.

2026년 2월에 발표된 GenAI를 위한 COSO 실무가이드는 GenAI의 활용 방식을 기능 유형별로 구분하고 이를 COSO의 5대 구성요소와 결합함으로써,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적 관점과 실무적인 적용 방안을 동시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GenAI를 프로세스에 도입한 기업들은 COSO 프레임워크와 AI 기능 유형에 연계된 통제를 설계·구축하고, 명확한 성과지표와 거버넌스 보고체계를 바탕으로 그 효과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야 합니다. 이러한 접근이 효과적으로 구현된다면 Gen AI는 단순히 새로운 위험요인이 아니라, 적절한 통제와 관리체계 아래에서 운영되는 전략적 자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의 실제 업무 프로세스를 계약 단계에서 재무제표 기표 단계까지 구체적으로 이해하고, 각 프로세스의 상호 연관성을 복합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또한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내부통제를 설계하려면 현업 프로세스에 대한 높은 이해와 이를 기반으로 한 위험평가 역량이 필요합니다.

삼일PwC와 PwC 컨설팅은 다양한 고객의 AI 프로세스 전환과 AI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지원해 온 경험과 국내 최대 규모의 내부통제 감사 및 관련 자문 수행을 통해 축적한 내부통제 전문성을 바탕으로, GenAI 대전환 시대에 필요한 리스크 관리와 내부통제 체계의 설계 및 운영 전환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업의 현장에서 적용되는 업무 프로세스와 기존 내부관리 체계를 함께 고려하여 COSO 프레임워크를 실무에 적용하고, AI 활용 사례의 식별 및 위험평가부터 그에 대응하기 위한 통제 설계·구축, 모니터링 및 지속적인 개선에 이르기까지 효과적이고 실무적인 자문을 제공해드릴 수 있습니다.

Contacts



서희원 Partner

hee-won.seo@pwc.com
02-3781-9887



김의준 Partner

euijun.kim@pwc.com
02-709-8969



삼일PwC의 간행물은 일반적인 정보제공 및 지식전달을 위하여 제작된 것으로, 구체적인 회계이슈나 세무이슈 등에 대한 삼일PwC의 의견이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간행물의 정보를 이용하여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삼일PwC는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하며, 본 간행물의 정보와 관련하여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삼일PwC 전문가의 자문 또는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S/N: 2611A-RP-127

© 2026 Samil PwC. All rights reserved. PwC refers to the Korea group of member firms and may sometimes refer to the PwC network. Each member firm is a separate legal entity. Please see www.pwc.com/structure for further details.

pwc.com/kr
pwcconsulting.co.kr